

# 백제왕도익산, 문화재활용 공모사업 최종선정 '꽤거'

### 3개사업 선정 국·도비 2억 6500만원 확보

익산시가 최근 문화재청이 추진한 2019년 문화재활용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이 모두 선정, 국·도비 2억6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재활용사업은 문화재 이관문화 체험 향유를 위한 '문화재이행', 문화재와 교육 문화 체험을 접목시킨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문화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익산시는 그간 지역의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개발·활용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노력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재활용 콘텐

츠 구성의 적절성, 프로그램 질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으며, 익산시는 도심형 사업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농촌형 '이행사업' 등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등, 사업완성도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에 이어 총 사업비 1억4,5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 예산으로 내년에도 계속해 익산이 보유한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화된 콘

텐츠를 창출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문화재 활용으로 지역과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미래를 여는 세계유산 도시 익산의 가치 실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최된 문화재활용사업 '문화재이행'은 최초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찬란한 백제시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역사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받았으며 오는 10월 5일과 6일, 두 번째 '문화재이행'이 소원등 날리기 등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틀간 백제왕궁 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쉼터 네 곳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로·격려 말 전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추석을 맞아 최근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4개소를 방문해 격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추석을 맞아 최근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4개소를 방문해 격려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영보논혜의 집 새소망단기보호시설, 이리보육원 여성의 쉼터 네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곳의 생활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정헌율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신 분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추석명절을 시설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지 않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 단체, 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헌율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100억원 돌파 경제회복 '불씨'

### 구매 한도 증액 요청 개인별 구매한도 상향 월 50만원→100만원으로... 판매실적 급등

지역경기 부양의 기대를 모으며 지난 3월부터 발매를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19일 만에 102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시에 따르면 첫날 8억여 원을 시작으로 발매 19일 만에 21일 102억 8천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며 상품권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되면서 시민이 스스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9%에 달하는 가맹점 가입에 따라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 요청으로 지난 18일부터 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판매실적이 급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사랑상품권

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31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시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큰 호응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32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8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안전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안전체험관은 영유아들에게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및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요령과 안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톤 차량을 개조해 만든 체험관에서 최신키트를 이용한 교육은 영유아의 큰 흥미를 이끌었다. 체험내용으로는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실내 안전교육', VR기기를 쓰고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을 배우는 '재난 안전교육', 흔들리는 지진판에서 대응요령을 익히는 '지진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부스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차량사고 예방교육, 자전거 보호장비 착용체험 인형극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오감을 자극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관계자는 "이처럼 수준에 딱 맞는 체험활동이 이렇게 가까이까지 와서 너무 편리하다"며 "이동체험관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집중안전점검

군산시는 명절 연휴를 대비해 역전 종합시장 일원에서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안전담당 등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군산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전종합시장 내 소방, 가스 시설을 점검했으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및 건강관리 수칙 등을 홍보하는 안전보건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보건소, 보육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역 무료검진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의료인 등 지역 내 어린이집 110개소 종사자 23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역 검진(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 IGRA)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복결핵 검역 검진은 결핵예방방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역 검진이 의무화,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 검역 검진은 근무기간 내 1회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 검역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증상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흉부 엑스선 결과가 정상이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기 때문에 격리조치가 필요 없고 집단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나, 결핵균

감염자의 5%는 2년 이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해 총 10% 정도가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잠복결핵 치료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과 발병 시 전파 등을 고려해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며 잠복결핵치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 등 면역력이 취약한 다수의 사람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예방 치료를 한다면 결핵 전파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2017년도 총 4,430명의 잠복결핵 검역 검진을 실시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산들강용포마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준공

익산시 산들강용포마을이 사업 착수 4년만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에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용포면 6개 마을(173가구, 4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준공식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이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의 핵심인 체험관시설은 지하층, 지상층 구조에 80평 규모의 세미나실, 60평 규모의 음식체험관, 힐링체험실(숙박 가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신축건물과 기존에 운영해오던 옹포활성화센터를 같이 활용한다면 그동안 유치할 수 없었던 대규모(100명 이상)의 농촌체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어 산들강용포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관광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전국 어느 농촌마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변 관광자원 및 농촌체험마을과 연계를 통하여 익산시가 대한민국 농촌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